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권 4호 (2014년 12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 | |
|---|-----------|
| 중년기 성격과 노화불안: 성격 5요인,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 | 김민희 · 신순옥 |
| 중년기 부부의 배려 정도와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 | 김승주 · 정영숙 |
| 과거와 미래사건의 순서에 대한 추론의 발달과 집행기능 | 윤주인 · 박영신 |
| 가리키기 행동 이해에 기반을 둔 12개월 영아들의 행동 목표 예측 능력 | 김은영 · 송현주 |
|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최나래 · 신나나 |
| 대학신입생의 자기존중감, 자기자비와 대처전략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 정영숙 · 김수빈 |
| 발달 초기 학습된 단어의 유지에 있어 타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 | 정은주 · 최영은 |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7 권 제 4 호 / 2014. 12

| | |
|--|-----------------|
| 중년기 성격과 노화불안: 성격 5요인,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 | 김민희 · 신순옥 / 1 |
| 중년기 부부의 배려 정도와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 | 김승주 · 정영숙 / 27 |
| 과거와 미래사건의 순서에 대한 추론의 발달과 집행기능 | 윤주인 · 박영신 / 51 |
| 가리키기 행동 이해에 기반을 둔 12개월 영아들의 행동 목표 예측 능력 | 김은영 · 송현주 / 73 |
|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최나래 · 신나나 / 91 |
| 대학신입생의 자기존중감, 자기자비와 대처전략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 정영숙 · 김수빈 / 117 |
| 발달 초기 학습된 단어의 유지에 있어 타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 | 정은주 · 최영은 / 139 |

한국발달심리학회

중년기 부부의 배려 정도와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감과의 관계*

김 승 주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중년기 부부 82쌍을 대상으로 27개 배려요소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를 배려하는 정도와 배우자로부터 배려받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배려실행 정도와 배려기대 정도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7개 배려 요소에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를 배려하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배려받기를 기대하는 정도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배려받기를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정도와 실제로 배려받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전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적게 배려를 받고 있지만, 남편보다는 아내가 기대하는 배려를 적게 받는 요소들이 많았다. 배우자로부터 배려받기를 원하는 배려기대와 배우자에 대한 배려실행이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아내로 향한 배려실행과 아내에게 원하는 배려기대가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고,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남편으로 향한 배려실행과 남편에게 원하는 배려기대 이외에 남편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삶의 만족감에는 남편의 배려실행만이 영향을 주었으나 아내의 삶의 만족감에는 아내의 배려실행 이외에 남편의 배려실행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중년기 부부, 배려실행, 배려기대,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감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3A2054886).

† 교신저자: 정영숙,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E-mail: yschong@pusan.ac.kr

우리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등 일생을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사회적 존재이다(조공호, 2011). 많은 관계 중에서 부부관계는 가족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인간의 중요한 행복의 근원이기도 하다(이상호, 2012; Berscheid & Reis, 1998; Diener & Suh, 1998). 자녀의 독립이라는 변화를 경험하며 다시금 동반자 의식을 지니게 되는 중년기에 부부의 친밀관계는 개인의 행복과 삶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명자, 1998; 이화자, 최연실, 2003; 정현숙, 2001).

부부관계처럼 친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필요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이롭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Clark & Mills, 1979; Williamson & Clark, 1989). 상대방의 필요나 요구에 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불편을 없애거나 안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배려의 기본이다. 배려가 무엇인지에 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 배려(配慮)는 '배우자(配)의 처지를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쓰는[慮]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배려는 특히 부부간에 매우 필요한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박정식, 김용희, 이상교, 김미혜, 김원, 임동후, 2005). 본 연구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Harvey, Pauwels, & Zickmund, 2002; Miller, Perlman, & Berhm, 2007), 중년 부부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살피고자 하였다.

심리학에서 배려 개념은 주로 이타행동 또는 친사회적 도덕에서 사용되고 있다. 도덕심

리학에서 배려는 Kohlberg(1981)의 정의적 도덕에 대한 보완 개념으로 Gilligan(1982)에 의해 제안되었다. Gilligan(1982)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토대로 여성들의 도덕적 추론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중심의 도덕임을 제안하였다. Gilligan의 제안 이후 도덕에서 정의(justice)와 배려(care)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두 가지가 공존가능한지 등에 관한 물음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박병춘, 2014). 윤리학자 Held(2006)에 따르면, 배려는 가장 근본적 도덕이며 배려 없이는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p. 131). 이렇듯 우리의 삶, 특히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혼관계를 지속하는데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배려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고, 강조하는 측면도 차이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 측면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배려에는 배려대상의 상태나 처지에 대한 인식(인지적 측면), 그 대상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안녕을 증진시키려는 이타적 동기(동기적 측면), 그 대상을 배려하는 행동의 실행(행동적 측면), 그리고 배려대상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로 인한 정서적 만족(정서적 측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정영숙, 1994; Graham, 1983; Mayeroff, 1971; Noddings, 1984). 자연 상황에서 2세 된 유아가 어머니의 불편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그 불편을 덜어 주려는 행동(Zahn-Waxler, Radke-Yarrow, Wagner, & Chapman, 1992)이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이 어머니의 고생을 인식하고 그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갖다 주려고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정영숙, 1994).

배려의 시작은 상대방의 처지나 상태를 인

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하려면 어머니의 상태, 처지 또는 필요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식을 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어머니가 늘 고생한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한다. 아내를 배려하려면 아내의 요즈음 기분이 어떤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배려에서 상대방의 욕구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은 배려 이론가들에 의해 일찍이 제안되었다. Mayeroff(1971)는 배려의 주요 요소로 ‘알기(knowing)’를 들었는데, 이는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그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것이다. Fisher와 Tronto(1990) 역시 배려의 시작을 염려(caring about)로 제안하였는데, 염려는 상대방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것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여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다.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를 배려하려면 먼저 배우자의 필요나 욕구, 감정, 생각, 기호 등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배려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상대방으로 향한 이타적 관심이다. 배려에는 상대방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정영숙, 1994; Graham, 1983; Noddings, 1984). Noddings(1984)에 따르면, 모든 배려는 근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몰두(engrossment)와 관련되는데, 여기서 몰두는 배려하는 사람의 의식이 상대방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배려하는 사람의 동기적 에너지가 타인이나 타인의 목표를 향해 흐르는 것이다. 이러한 몰두의 방향은 상대방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타적 동기가 관련된다고 하겠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예

측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Fisher와 Tronto(1990)의 제안도 배려에 포함된 이타적 동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곤경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거나 배우자가 고통이나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고자 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가 힘들 때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배려 개념에서 중시되는 또 다른 차원은 실행이다. 배려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편을 실제로 없애거나 복지를 증진시키는 개인의 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배려를 흔히 보살핌(caregiving)으로 칭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실행을 강조하는 용어이다(Fisher & Tronto, 1990; Graham, 1983). 남편이 아내를 배려한다는 것에는 아내가 아플 때 실제로 가사 일을 도와주거나, 남편이 의기소침할 때 격려해주며, 기분과 감정을 잘 헤아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3년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이었다(뉴시스, 2013). 이 결과는 우리 사회가 현재 타인을 잘 배려하고 있는 사회라는 입증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 응답은 자녀는 부모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배려하지 못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Held(2006)의 주장처럼, 배려가 삶에서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한 것은 배려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힘들고, 이를 측정하는 것 역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관계가 행복의 중요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중년기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인 부부관계에서의 배려에 관한 연구는 중년기 행복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부부간의 배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배려를 측정하는 탐색적 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배려에 포함된 요소들을 가능한 많이 찾고자 하여, 이론적으로 제안된 요소와 경험 연구를 통해

제안된 요소들을 모두 망라하고자 하였다.

배려의 구성 요소 탐색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부부간의 배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배려의 요소로 제안한 것을 모두 망라하여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1에는 선행 연구자들이 제안한 배려의 요소들이 연구자별로 정리되어 있다. 선행 연구는 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 제안한 배려의 구성요소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

표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배려의 구성요소

| 연구자 | 구성요소 | 설명 |
|--------------------------------|---------------------|--|
| Mayeroff (1971) | 알기(knowing) | 타인의 욕구를 알고, 그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
| | 인내(patience) | 타인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주고 실수에 관용적인 것 |
| | 정직(honesty) | 개인의 행동과 느낌에 차이가 없는 것 |
| | 신뢰(trust) | 타인을 믿어주는 것 |
| | 겸손(humility) | 타인에게 배울 수 있다는 마음 |
| | 용기(courage) | 결과를 확신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 |
| Graham (1983) | 관심(concern) | 다른 사람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는 것 |
| | 돌봄(care) | 실제로 돌보는 행동 |
| 이론 연구 Noddings (1984) | 전념(engrossment) | 자신의 관심을 배제하고 타인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기 |
| | 동기전환 | 타인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간주하고 이를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
| | 공감(empathy) | 타인과 함께 느끼는 것 |
| | 수용(receptive) | 타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 |
| | 반응(response) | 배려 받음에 대한 응답 |
| Fisher & Tronto (1990) | 염려(caring about) | 상대방의 필요를 인식하고 필요충족을 위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
| | 책임감(taking care of) | 결과를 예측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 |
| | 실천(caregiving) |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
| | 응답(care-receiving) | 배려 받음에 대해 응답하는 것 |

(계속)

| 연구자 | 구성요소 | 설명 |
|----------|------------------------------------|---------------------------------|
| 경험 연구 | 시간(time) |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
| | 존재(be there) | 상대방을 돕기 위해 옆에 존재하는 것 |
| | 대화(talking) |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빈번한 의사소통 |
| | Tarlow (1996) 민감성(sensitivity) | 타인의 필요에 민감한 것 |
| | 긍정감정 (feeling concern for) | 타인에게 관심이나 애정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가지는 것 |
| | 실천(caregiving) |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
| | 호혜성(reciprocity) | 받은 배려에 응답하는 것 |
| | 염려 | 타인을 염려하고 걱정 |
| | 김소영 (2005) 타인심정고려 | 역지사지의 자세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 |
| | 양보심 |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남을 위해 양보 |
| | 양미진, 김은영, 이상희 (2008) 조망수용 | 타인관점과 자기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
| | 공감 | 타인의 정서적 상태와 일치하는 대리적 정서반응 |
| | 행동 | 타인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
| | 이연수, 김성희 (2009) 타인고려 | 상대방의 입장, 처지, 상황을 생각 |
| | 민감 | 상대방에 대한 필요, 감정 등에 마음을 쏟 |
| | 긍정적 반응 | 배려행동에 대하여 정적인 반응 |

로 경험적으로 배려를 측정 한 요소들도 포함 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강조하는 배려의 요소들이 다르고, 그 요소들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 요소들은 모두 배려에서 중시하는 인지적 요소, 동기적 요소, 실행적 요소 및 공감과 같은 정서적 요소들로 정리할 수 있다. Mayeroff(1971)의 알기, Fisher와 Tronto(1990)의 염려, Tarlow(1996)의 민감성 등의 요소는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나 욕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자료에서도 타인심정고려(김소영, 2005),

조망수용(양미진, 김은영, 이상희, 2008), 그리고 타인고려(이연수, 김성희, 2009)라는 요소 역시 배려에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기적 요인으로는 Graham(1983)의 관심, Noddings(1984)의 전념, 김소영(2005)의 염려, 이연수와 김성희(2009)의 민감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는데, 이 요소들은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려면 상대방의 안녕과 필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연구자들이 배려에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Graham(1983)의 돌봄, Fisher와 Tronto(1990),

Tarlow(1996)의 실천, 양미진 등(2008)의 행동 요소는 배려행동의 실천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배려행동의 실천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요소로는 인내(Mayeroff, 1971), 동기전환(Noddings, 1984), 양보심(김소영, 2005) 등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수용, 정직과 신뢰, 긍정적 감정 등은 배려와 관련된 주요 정서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려 관련 연구자들은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배려에 주목하며, 호혜성(reciprocity)도 강조하고 있다(이연수, 김성희, 2009; Fisher & Tronto, 1990; Mayeroff, 1971; Noddings, 1984; Tarlow, 1996).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는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배려의 호혜성에는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받는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배려해야 하고, 배려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배려에 대해 인지하고, 배려가 상호적으로 순환되도록 반응해야 한다(이기복, 2006).

부부 배려와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감

배우자를 배려하고 배우자에게 배려받고자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욕구 중의 하나이다(박은미, 2006; 전지혜, 2012).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많은 갈등이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전지혜, 2012).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배려 받는 것은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며 다음에 또 배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김춘옥, 2009).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에 대한 배려는 부부간의 애정을 유지시켜주고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생활을 유지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진, 2011; Gottman & Silver, 1999).

배려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개인의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배려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관계를 촉진시키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배려 관련 요소들은 부부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배려의 요소들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혼이 안정적이며 부부만족도가 높다는 결과(Hill, 1988; Kingstone & Nock, 1987)는 Tarlow(1996)가 제안한 부부배려에서 함께 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지지해준다. 배우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 역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공감적인 태도로 지지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만족해하며(Cobb, Davila & Bradbury, 2001; Matthews, Conger, & Wichrama, 1996),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는 결혼의 안정성과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진, 2005; 김중술, 조두영, 홍강의, 조수철, 신민섭, 류인균 외, 2002; 박남숙, 2005; 송정아, 1996; 오윤자, 유영주, 1994; Altrocchi, 1989; Cordova, Jacobson, & Christensen, 1998; Long & Andrews, 1990).

배려는 관계지향적 개념이므로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배려는 배려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배려에는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려는 이타주의적 성향과 행동은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감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이향심, 2007; Emily, Shelly, &

Letitia, 2005; Post, 2005).

부부 간의 배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외 배려 연구는 배려의 의미를 탐색하는 이론적 연구에 그치거나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배려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권미정, 2008; 김민성, 엄채윤, 박은정, 2009; 김소영, 2005; 문정애, 2009; 민태옥, 2004; 박병춘, 2002; 박혜연, 2010; 이미식, 2012; 이보라, 2007; 이연수, 김성희, 2009; 조혜경, 2008; Fisher & Tronto, 1990; Graham, 1983; Mayeroff, 1971; Noddings, 1984; Tarlow, 1996),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중년기 부부 간의 배려가 개인과 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0-64세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배려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배우자에게 배려받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배우자로부터 얼마나 배려받기를 원하는지(배려기대),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지(배려실행),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배려기대와 배려실행이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중년기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를 배려하는 정도(배려실행)와 배우자로부터 배려 받기를 기대하는 정도(배려기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를 배려하는 정도(배려실행)와 배우자로부터 배려 받기를 기대하는 정도(배

려기대)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에서 차이가 있는가?

1-1.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를 배려하는 배려실행에서 차이가 있는가?

1-2.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로부터 배려받기를 기대하는 배려기대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에 대한 배려실행과 배우자로부터 받기 원하는 배려기대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1. 남편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는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2. 아내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는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년기 부부 85쌍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미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쌍을 제외한 82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남편의 평균 연령은 53.54세이었고, 아내의 평균 연령은 50.66세이었다. 교육수준은 남편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0명

(48.8%), 고등학교 졸업이 32명(39%)이었다. 아내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4명(53.7%), 대학교 졸업이 28명(34.1%)이었다. 결혼형태는 연애결혼이 56명(68.3%)으로 중매결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경제수준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동년배들과 '비슷하다'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남편 46.3%, 아내 50.0%), 더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편의 경우 31.7%, 아내의 경우 33%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수준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남편 47.6%, 아내 53.7%),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남편 11%, 아내 15.9%).

측정도구

배려중요도, 배려실행, 배려기대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를 어느 정도 배려하고 있는지(배려실행),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어느 정도 배려받기를 원하는지(배려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배려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부부간의 배려 구성 요소를 찾는 것이었다.

발달심리전공 교수와 발달심리전공 박사수료자 그리고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3명이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배려의 구성요소 33개(표 1 참조) 중 의미가 유사한 6개를 통합하여 27개의 배려 요소를 선정하였다(표 2 참조). 이 27개의 배려 요소를 토대로 27개 배려 요소 각각에 대해 남편과 아내에게 세 가지 질문이 연속해서 주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해당 배려 요소가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는 것이었다(배려중요도).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된 배려중요도 질문은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해당 배려 요소를 배우자에게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배려실행).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된 배려실행 질문은 "귀하는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얼마나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이었다. 세 번째 질문은 해당 배려 요소를 상대 배우자가 해주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배려기대).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된 배려기대 질문은 "귀하는 배우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얼마나 원합니까?"이었다. 남편과 아내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Likert식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편과 아내가 응답한 27개 배려 요소에서 배려중요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각각 .97(남편), .96(아내)이었으며, 배려실행의 Cronbach's α 는 각각 .97(남편), .95(아내)이었으며, 배려기대의 Cronbach's α 는 각각 .97(남편), .97(아내)이었다.

결혼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Norton(1983)의 부부관계의 질 지표(Quality Marriage Index)를 사용하였다(장춘미, 2001 번역). 이 척도는 Norton이 기존의 결혼만족 질문지들의 항목을 종합하여 6개의 평가적 문항으로 개발한 것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Cronbach's α 는 각각 .95, .93 이었다.

삶의 만족감

삶의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감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이종길(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Likert식 5점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삶의 만족감의 Cronbach's α 는 각각 .89, .90이었다.

결 과

27개 배려 요소에서 남편과 아내가 응답한 배려중요도, 배려실행, 배려기대의 차이

남편과 아내의 배려중요도 인식 차이 비교

부부관계에서 중시되는 27개의 배려 요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배려중요도) 평정한 질문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배려 요소의 중요성 평정의 전체 평균을 보면, 남편($M=6.26$, $SD=.67$)과 아내($M=6.33$, $SD=.71$)의 평균 간에 차이가 없었다. 배려중요도가 7점 척도인 것을 감안해보면, 이 결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본 연구에서 제안된 27개 배려 요소들이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27개 배려 요소 중 유일하게 차이가 난 요소는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t=-2.28$, $p<.05$).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에 대한 차이 비교

남편과 아내가 27개 배려 요소에서 상대 배

우자에게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27개 중 4개의 배려 요소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아내에게 실행하는 정도와 아내가 남편에게 실행하는 정도 간에 차이가 없다. 흥미로운 점은 배려실행에서 차이가 나는 4가지 배려 요소에서 모두 아내의 배려실행이 남편의 배려실행이 더 높다는 점이다. 4개 배려 요소를 살펴보면, 아내는 '배우자가 힘들 때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t=-3.42$, $p<.01$), '배우자가 감정이 어떤지 아는 것'($t=-2.54$, $p<.05$), '배우자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t=-2.44$, $p<.05$), 그리고 '배우자가 나보다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인정하는 것'($t=-2.10$, $p<.05$)을 남편보다 실제로 더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는 남편과 아내가 27개 배려 요소에 대해 상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정도의 평균도 제시되어 있다. 전체 평균 점수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내는 남편보다 상대 배우자에게 배려받기를 더 많이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t=-2.81$, $p<.01$). 27개 배려 요소 중 17개 요소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더 많이 배려받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비해 아내들이 배려기대가 높은 배려 요소에는 '배우자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t=-4.13$, $p<.001$), '배우자가 힘들 때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t=-3.92$, $p<.001$), '배우자가 곤경에 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t=-3.67$, $p<.01$), '배우자의 감정변화, 생각을 잘 아는 것'($t=-3.38$, $p<.01$),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것'($t=-3.32$, $p<.01$), '배우자의 기분과 감정을 잘 헤아려 주는 것'($t=-3.08$, $p<.01$), '배우자가 고통이나 불편이

표 2. 27개 배려 요소에서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의 평균과 표준편차

| 배려 요소 | 배려실행 | | | 배려기대 | | |
|------------------------------------|--------------|--------------|----------|--------------|--------------|----------|
| | 남편 (N=82) | 아내 (N=82) | <i>t</i> | 남편 (N=82) | 아내 (N=82) | <i>t</i> |
|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 4.13(1.99) | 4.17(1.89) | | 5.46(1.46) | 5.30(1.67) | |
| 힘이 되기 위해 항상 옆에 있어 주는 것 | 4.22(1.81) | 4.62(1.64) | | 5.32(1.33) | 5.49(1.60) | |
|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 | 4.49(1.90) | 4.73(1.82) | | 5.45(1.53) | 5.99(1.20) | -2.50* |
| 배우자의 감정변화, 생각을 잘 아는 것 | 4.49(1.60) | 4.95(1.52) | | 5.40(1.29) | 6.05(1.15) | -3.38** |
| 곤경에 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 5.55(1.47) | 5.67(1.36) | | 5.70(1.19) | 6.34(1.06) | -3.67** |
| 배우자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 | 4.84(1.71) | 4.89(1.57) | | 5.52(1.28) | 5.68(1.43) | |
| 행동이나 말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 4.21(1.88) | 4.87(1.57) | -2.44* | 5.44(1.12) | 5.80(1.37) | |
|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 4.45(1.68) | 4.71(1.45) | | 5.18(1.38) | 5.76(1.38) | -2.66** |
| 배우자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 4.96(1.69) | 5.30(1.24) | | 5.23(1.33) | 6.01(1.08) | -4.13** |
| 배우자가 고통이나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는 것 | 4.95(1.68) | 5.10(1.38) | | 5.28(1.38) | 5.88(1.38) | -2.77** |
| 배우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함께 바라고 원하는 것 | 4.40(1.72) | 4.89(1.49) | | 5.05(1.43) | 5.63(1.52) | -2.54* |
| 배우자의 기쁨, 슬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 4.84(1.72) | 5.07(1.37) | | 5.27(1.39) | 5.80(1.29) | -2.56* |
| 배우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 4.94(1.64) | 4.91(1.57) | | 5.52(1.35) | 5.79(1.40) | |
| 배우자가 힘들 때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 4.85(1.58) | 5.66(1.43) | -3.42** | 5.20(1.45) | 6.06(1.37) | -3.92** |
| 배우자의 기분과 감정을 잘 헤아려 주는 것 | 4.57(1.70) | 4.80(1.51) | | 5.34(1.50) | 6.00(1.23) | -3.08** |
| 배우자를 위해 내가 양보하는 것 | 4.83(1.80) | 5.15(1.45) | | 5.28(1.38) | 5.71(1.22) | -2.10* |
| 배우자와 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 4.82(1.53) | 4.83(1.47) | | 5.26(1.43) | 5.76(1.36) | -2.30* |
|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것 | 4.60(1.57) | 4.84(1.48) | | 4.94(1.41) | 5.66(1.36) | -3.32** |
| 배우자가 처한 입장이나 상황을 아는 것 | 4.90(1.33) | 5.09(1.40) | | 5.22(1.33) | 5.71(1.45) | -2.24* |
| 배우자가 감정이 어떤지 아는 것 | 4.38(1.48) | 4.95(1.41) | -2.54* | 5.27(1.29) | 5.79(1.34) | -2.56* |
| 배우자의 욕구나 기호를 잘 아는 것 | 4.54(1.42) | 4.73(1.51) | | 5.18(1.43) | 5.70(1.38) | -2.34* |
| 배우자가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배우자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 5.16(1.49) | 5.26(1.51) | | 5.51(1.40) | 5.90(1.27) | |
| 배우자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 | 5.55(1.25) | 5.82(1.33) | | 5.84(1.16) | 6.23(1.22) | -2.10* |
| 배우자를 믿어주는 것 | 5.87(1.11) | 5.85(1.40) | | 6.13(.95) | 6.27 (.98) | |
| 배우자가 나보다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인정하는 것 | 5.01(1.48) | 5.48(1.35) | -2.10* | 5.38(1.24) | 5.68(1.21) | |
| 배우자가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에 용기를 주는 것 | 5.26(1.42) | 5.56(1.37) | | 5.70(1.21) | 5.82(1.24) | |
| 배우자가 흥미를 보이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을 함께 하는 것 | 4.51(1.72) | 4.60(1.72) | | 5.04(1.51) | 5.23(1.80) | |
| 전체 평균 | 4.79(1.18) | 5.06(.99) | | 5.38(1.02) | 5.82(.99) | -2.81** |

* $p < .05$, ** $p < .01$, *** $p < .001$

없도록 보살피는 것'(t=-2.77, $p<.01$),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t=-2.66, $p<.01$), '배우자가 감정이 어떤지 아는 것'(t=-2.56, $p<.05$), '배우자의 기쁨, 슬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t=-2.56, $p<.05$), '배우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함께 바라고 원하는 것'(t=-2.54, $p<.05$), '배우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t=-2.50, $p<.05$), '배우자의 욕구나 기호를 잘 아는 것'(t=-2.34, $p<.05$), '배우자와 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t=-2.30, $p<.05$), '배우자가 처한 입장이나 상황을 아는 것'(t=-2.24, $p<.05$), '배우자를 위해 내가 양보하는 것'(t=-2.10, $p<.05$), '배우자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t=-2.10, $p<.05$)에 대한 기대가 남편보다 아내가 더 높았다.

배려실행과 배려기대에서 남편과 아내의 차이에 관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일부 영역에서 더 많은 배려를 실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남편으로부터 배려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 간 차이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하는 배려만큼 실제로 배려를 받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만큼 실제로 배려를 받고 있는지는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배려 요소에서 남편의 아내에게 기대하는 배려 정도(남편의 배려기대)와 실제로 아내가 남편에게 실행하는 배려 정도(아내의 배려실행),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배려 정도(아내의 배려기대)와 그에 대한 남편의 실제 배려 정도(남편의 배려실행)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남편의 배려기대와 아내의 배려실행 간 차이

먼저 27개 배려 요소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배려기대와 배우자인 아내가 남편에게 배려하는 실행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3 참조), 남편이 배려 받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아내가 더 많이 배려해주는 요소는 1개로 '배우자가 힘들 때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t=-2.66, $p<.05$)이었다. 남편이 기대하는 것만큼 아내가 잘 배려해주는 요소는 15개이었고, 남편이 배려 받기를 기대하는 만큼 아내가 배려해주지 못하는 요소는 11개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실제로 배려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내의 배려기대와 남편의 배려실행 간 차이

남편이 아내로부터 기대하는 배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에 반하여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기대하는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7개 배려 요소 모두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남편으로부터 덜 배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기대하는 배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를 배려하고, 배우자로부터 배려받기를 기대하는 정도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는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 배려기대와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

표 3. 27개 배려 요소에서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에 대한 배려기대와 배우자의 배려실행의 차이

| 배려 요소 | 배려기대 - 배려실행(남편용) | | | 배려기대 - 배려실행(아내용) | | |
|---------------------------------------|-----------------------|-----------------------|--------|-----------------------|-----------------------|--------|
| | 남편의 배려기대 (N=82) | 아내의 배려실행 (N=82) | t | 아내의 배려기대 (N=82) | 남편의 배려실행 (N=82) | t |
|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 5.46(1.46) | 4.17(1.89) | 6.13** | 5.30(1.67) | 4.13(1.99) | 4.70** |
| 힘이 되기 위해 항상 옆에 있어 주는 것 | 5.32(1.33) | 4.62(1.64) | 3.19** | 5.49(1.60) | 4.22(1.81) | 5.56** |
|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 | 5.45(1.53) | 4.73(1.82) | 3.06** | 5.99(1.20) | 4.49(1.90) | 6.12** |
| 배우자의 감정변화, 생각을 잘 아는 것 | 5.40(1.29) | 4.95(1.52) | 2.48* | 6.05(1.15) | 4.49(1.60) | 7.04** |
| 곤경에 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 5.70(1.19) | 5.67(1.36) | | 6.34(1.06) | 5.55(1.47) | 4.91** |
| 배우자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 | 5.52(1.28) | 4.89(1.57) | 3.11** | 5.68(1.43) | 5.55(1.47) | 3.71** |
| 행동이나 말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 5.44(1.12) | 4.87(1.57) | 3.02** | 5.80(1.37) | 4.21(1.88) | 6.65** |
|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 5.18(1.38) | 4.71(1.45) | 2.65* | 5.76(1.38) | 4.45(1.68) | 5.91** |
| 배우자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 5.23(1.33) | 5.30(1.24) | | 6.01(1.08) | 4.96(1.69) | 5.45** |
| 배우자가 고통이나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는 것 | 5.28(1.38) | 5.10(1.38) | | 5.88(1.38) | 4.95(1.68) | 4.45** |
| 배우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함께 바라고 원하는 것 | 5.05(1.43) | 4.89(1.49) | | 5.63(1.52) | 4.40(1.72) | 6.08** |
| 배우자의 기쁨, 슬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 5.27(1.39) | 5.07(1.37) | | 5.80(1.29) | 4.84(1.72) | 4.57** |
| 배우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 5.52(1.35) | 4.91(1.57) | 3.02** | 5.79(1.40) | 4.94(1.64) | 3.99** |
| 배우자가 힘들 때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 5.20(1.45) | 5.66(1.43) | -2.66* | 6.06(1.37) | 4.85(1.58) | 6.55** |
| 배우자의 기분과 감정을 잘 헤아려 주는 것 | 5.34(1.50) | 4.80(1.51) | 2.60* | 6.00(1.23) | 4.57(1.70) | 6.83** |
| 배우자를 위해 내가 양보하는 것 | 5.28(1.38) | 5.15(1.45) | | 5.71(1.22) | 4.83(1.80) | 4.38** |
| 배우자와 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 5.26(1.43) | 4.83(1.47) | 2.26* | 5.76(1.36) | 4.82(1.53) | 4.62** |
|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것 | 4.94(1.41) | 4.84(1.48) | | 5.66(1.36) | 4.60(1.57) | 5.04** |
| 배우자가 처한 입장이니 상황을 아는 것 | 5.22(1.33) | 5.09(1.40) | | 5.71(1.45) | 4.89(1.33) | 4.02** |
| 배우자가 감정이 어떤지 아는 것 | 5.27(1.29) | 4.95(1.41) | | 5.79(1.34) | 4.38(1.48) | 7.57** |
| 배우자의 욕구나 기호를 잘 아는 것 | 5.18(1.43) | 4.73(1.51) | 2.32* | 5.70(1.38) | 4.54(1.42) | 6.21** |
| 배우자가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배우자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 5.51(1.40) | 5.26(1.51) | | 5.90(1.27) | 5.16(1.49) | 3.67** |
| 배우자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 | 5.84(1.16) | 5.82(1.3) | | 6.23(1.22) | 5.55(1.25) | 4.30** |
| 배우자를 믿어주는 것 | 6.13(.95) | 5.85(1.40) | | 6.27(.98) | 5.87(1.11) | 3.00** |
| 배우자가 나보다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인정하는 것 | 5.38(1.24) | 5.48(1.35) | | 5.68(1.21) | 5.01(1.48) | 3.46** |
| 배우자가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에 용기를 주는 것 | 5.70(1.21) | 5.56(1.37) | | 5.82(1.24) | 5.87(1.42) | 3.32** |
| 배우자가 흥미를 보이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을 함께 하는 것 | 5.04(1.51) | 4.60(1.72) | | 5.23(1.80) | 4.51(1.72) | 3.30** |
| 전체 평균 | 5.37(1.02) | 5.06(.99) | 2.80** | 5.82(.99) | 4.79(1.18) | 7.67** |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 배려기대,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감 간의 상관

| | 1 | 2 | 3 | 4 | 5 | 6 | 7 |
|--------------|------|------|------|------|------|------|------|
| 1. 남편의 배려실행 | | | | | | | |
| 2. 남편의 배려기대 | .70* | | | | | | |
| 3. 남편의 결혼만족 | .68* | .63* | | | | | |
| 4. 남편의 삶의 만족 | .56* | .42* | .71* | | | | |
| 5. 아내의 배려실행 | .51* | .48* | .48* | .40* | | | |
| 6. 아내의 배려기대 | .39* | .45* | .32* | .32* | .62* | | |
| 7. 아내의 결혼만족 | .54* | .36* | .50* | .38* | .69* | .62* | |
| 8. 아내의 삶의 만족 | .45* | .38* | .34* | .41* | .55* | .36* | .67* |

* $p < .01$

족도, 삶의 만족감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의 배려 실행이나 배려기대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p < .01$), 아내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도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 < .01$).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가 결혼

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단계적 투입방법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이, 표 6에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제시되어 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아내에게 실행하는 배려정도(남편의 배려실행)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47%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80) = 70.43, p < .001$).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배려받기를 기대하는 배려기대가 추가될 경우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52%로 증가하였다($F(2, 79) = 41.92, p < .001$). 아내의

표 5.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종속변인 | 단계 | 예측변인 | β | t | R^2 | ΔR^2 | F |
|--------------|----|----------|---------|---------|-------|--------------|----------|
| 남편의 결혼만족도 | 1 | 남편의 배려실행 | .68 | 8.39*** | .47 | | 70.43** |
| | 2 | 남편의 배려실행 | .48 | 4.35*** | | | |
| | | 남편의 배려기대 | .30 | 2.76** | .52 | .05 | 41.92*** |

** $p < .01$, *** $p < .001$

표 6.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 종속변인 | 단계 | 예측변인 | β | t | R^2 | ΔR^2 | F |
|--------------|----|----------|---------|---------|-------|--------------|----------|
| 아내의 결혼만족도 | 1 | 아내의 배려실행 | .69 | 8.63*** | .48 | | 74.49*** |
| | 2 | 아내의 배려실행 | .50 | 5.22*** | | | 46.67*** |
| | | 아내의 배려기대 | .31 | 3.20** | .54 | .06 | |
| | 3 | 아내의 배려실행 | .41 | 4.07*** | | | 35.72*** |
| | | 아내의 배려기대 | .28 | 3.00** | | | |
| | | 남편의 배려실행 | .23 | 2.62* | .58 | .04 | |
| | 4 | 아내의 배려실행 | .43 | 4.35*** | | | 29.61*** |
| | | 아내의 배려기대 | .32 | 3.46** | | | |
| | | 남편의 배려실행 | .37 | 3.54** | | | |
| | | 남편의 배려기대 | -.24 | -2.31* | .61 | .03 | |

* $p < .05$, ** $p < .01$, *** $p < .001$

배려실행과 배려기대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은 남편 자신이 아내를 많이 배려해주고(남편의 배려실행), 아내로부터 배려 받기를 많이 기대할수록 결혼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6 참조),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에게 실행하는 배려(아내의 배려실행)로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80) = 74.49, p < .001$). 여기에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배려기대(아내의 배려기대)가 추가되는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54%로 증가하였다($F(2, 79) = 46.67, p < .001$). 남편의 결혼만족도 양상과는 다르게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남편의 배려실행과 남편의 배려기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배려실행이 추가될 경

우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58%로 증가하였고($F(3, 78) = 35.72, p < .001$), 남편의 배려기대가 추가될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61%까지 증가하였다($F(4, 77) = 29.61, p < .001$). 아내의 경우에는 자신이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으로부터 배려받기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 남편이 자신을 배려하는 것(남편의 배려실행)과 남편이 아내로부터 배려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과 배려기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

남편과 아내 각각의 삶의 만족감에 배려실행과 배려기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 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편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7 참조), 남편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은 남편

표 7. 남편의 삶의 만족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 종속변인 | 단계 | 예측변인 | β | t | R^2 | ΔR^2 | F |
|------------|----|----------|---------|---------|-------|--------------|----------|
| 남편의 삶의 만족감 | 1 | 남편의 배려실행 | .56 | 6.00*** | .31 | | 63.02*** |

*** $p < .001$

표 8. 아내의 삶의 만족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 종속변인 | 단계 | 예측변인 | β | t | R^2 | ΔR^2 | F |
|------------|----|----------|---------|---------|-------|--------------|----------|
| 아내의 삶의 만족감 | 1 | 아내의 배려실행 | .55 | 5.96*** | .31 | | 35.49*** |
| | 2 | 아내의 배려실행 | .44 | 4.19*** | | | |
| | | 남편의 배려실행 | .22 | 2.09* | .34 | .03 | 20.66*** |

* $p < .05$, *** $p < .001$

이 아내에게 실행하는 배려정도(배려실행)로 남편의 삶의 만족의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80) = 63.02, p < .001$). 그 이외의 변인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는 정도(아내의 배려실행)이외에 남편이 아내에게 배려하는 정도(남편의 배려실행)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내의 배려실행은 아내의 삶의 만족감의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 80) = 35.49, p < .001$), 이에 더하여 아내를 향한 남편의 배려실행이 추가되면 아내의 삶의 만족감에 대한 설명은 34%로 증가하였다($F(2, 79) = 20.66, p < .001$). 즉, 남편의 경우와는 달리 아내의 삶의 만족감에는 자신이 배우자를 배려하는 것 이외에 남편이 자신을 배려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타인과 함께 생활해야하는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나 요구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노력 없이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Held, 2006). 삶에서 배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배려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부부관계에서 필요한 27개의 배려 요소를 찾아 남편과 아내의 배려가 각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구성한 27개 배려 요소가 중년기 남편과 아내에게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일까 하는 것이다. 27개 배려 요소에 대한 중요도 평정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배려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여(7점 척도 상에서 최저 5.87에서 최고 6.73) 27개 배려 요소들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배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향후 여러

인간관계에서 배려에 관한 연구를 할 때 본 연구에 사용된 배려 요소들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배려에 관한 연구들은 배려의 호혜성을 강조하고 있다(Fisher & Tronto, 1990; Mayeroff, 1971; Noddings, 1984; Tarlow, 1996). 호혜성이란 배려를 주고 받는 것으로(이명신, 2008), 배려하는 사람은 배려받는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여 최선의 배려를 해야하며, 배려받은 사람은 배려해준 사람에게 응답하는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소영, 2005). 남편과 아내는 서로 호혜적인 배려를 실행하고 있는가?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실행하고 있는 배려에는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 부부간에 대체로 호혜적인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남성과 여성이 타인을 배려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소영, 2005; 임수형, 김희화, 공유경, 2010).

남편과 아내의 배려실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배려가 높으면 배려 기대와 배우자의 실제 배려실행 간에 괴리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배려기대와 배려실행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간에 차이가 있다(표 3 참조). 아내는 27개 배려 요소 모두에서 남편에게 기대하는 배려에 비해 남편이 덜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은 27개 중 15개 영역에서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배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에 따르면, 대부분의 낭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주고받는 정도가 동등하다고 지각될 때 관계가

지속되며(Harvey, Pauwels, & Zickmund, 2002; Sprecher, 1986), 관계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한 부부가 그렇지 않는 부부에 비해 관계만족이 더 높다(Van Yperen & Buunk, 1991).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면, 아내의 배려기대보다 남편의 배려실행이 적은 것이 축적될 경우 아내의 관계만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향후 이에 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상대방으로부터 배려를 많이 받는 것과 자신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인가? 배려받는 것이 배려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 결과,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신이 상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배려실행이었다. 남편의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배려실행 정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47%를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삶의 만족도의 31%를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행한 배려실행 정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 그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배려실행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48%를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삶의 만족감의 31%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배려와 관련하여 아내의 경우는 남편의 경우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로부터 남편이 받는 배려실행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아내의 경우에

는 남편이 아내에게 실행하는 배려정도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 둘 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아내에게 자신이 남편에게 제공하는 배려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받는 배려도 중요하다는 것은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배려받고자 하는 욕구가 보다 강하여 그것의 충족여부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욕구에 차이가 있는지, 그런 욕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부부간의 욕구와 배려 양상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보다 수혜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에게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경우와 이것을 주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친구, 친척, 이웃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들이 5년 후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타인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Nesse, Vinokur, & Smith, 2003). 또한 배우자와 친구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삶의 만족감과 정적 관계를 보이나, 자녀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은 삶의 만족감과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Thomas, 2010).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남성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남성 노인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심리적 안녕감과 생성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심리적 웰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백지은, 2010). 이 결과들은 모두 타인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삶에 더 긍정적임을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에 자신의 배려실행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는 발견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감에 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배려보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배려실행이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Lamm과 Schwinger(1980)에 따르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는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인간은 이타적 행동의 결과로 행복감을 얻을 뿐 아니라(Rushton, 1980), 남을 배려하는 행동은 삶의 의미를 높일 수 있다. Baumeister(1989)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갖기를 바라고(목적지향성),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정당한 것으로 느끼려고 하며(가치지향성), 자신이 환경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 하고(자기효능감), 자신이 보다 가치 있는 존재(자기존중감)라는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구의 충족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결과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정민, 1996; Emily, Shelly, & Letitia, 2005; Erikson, 1963; Kotre, 1984; McAdams, Hart, & Maruna, 1998; Post, 2005). 앞으로 배려의 심리적 기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준의 심리학’(psychology of giving)에 관한 심리적 고찰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배려(配慮)의 어원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배려는 부부간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며(박정식 외, 2005),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Harvey, Pauwels, & Zickmund, 2002; Miller, Perlman, & Berhm, 2007). 본 연구는 배려의 여러 구성요소들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배려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배려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된 27개 배려요소들을 근거로 배려 요소들의 기능을 탐색함으로써 배려의 심리적 기능을 심리학적 접근하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이 먼저 배우자를 배려하는 것이 결혼만족과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밝힘으로써 배려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확인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결과는 관계에서 왜 상대방을 배려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배우자를 배려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 자신에게 몰입하는 대신 자신 밖의 타인에게 몰입하여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이타주의는 심리 치료에서 치료적 힘을 가진다(Frankl, 1969). 따라서 배우자를 배려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치유적인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년기 부부의 적응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부 간의 배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지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배려 요소들을 단순 집약한 것으로, 앞으로 배려에 대한 보다 정교화된 개념, 배려의 핵심적 구성요소의 발견, 정교한 배려 측정 문항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배려와 관련된 성격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타인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이타성은 개인이 가진 성격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Burton, 1963; Hogan, 1973; Rushton, 1980). 추후 연구에서는 성격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변인들 이외에 부부간의 배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미정 (2008). 배려윤리를 통한 도덕과 윤리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진 (2011).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9-48.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김민성, 엄채운, 박은정 (2009). 중학생이 인식하는 '배려하는 교사'의 특성 및 유형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145-173.
- 김상아, 이기학 (2011). 대학생 생활 기대-만족차이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연구: 성격적 특성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2(2), 25-42.

- 김소영 (2005). 중학생의 배려심: 요인구조 및 관련변인.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25-324.
- 김중술, 조두영, 홍강의, 조수철, 신민섭, 류인균, 유성진 (2002). 부부치료의 새로운 접근: 관용과 수용. 인지행동치료, 2(1), 1-13.
- 김춘옥 (2009).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배려의 개념과 행동양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 뉴시스 (2013). 2013년 12월 1일자.
- 문정애 (2009). Noddings의 배려윤리와 그 교육적 의의.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태옥 (2004). 배려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피배척 아동의 자기 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남숙 (2005). 부부상담에서 집단상담의 치료적 활용: 문헌 고찰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97-1118.
- 박병춘 (2002).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서울: 울력.
- 박병춘 (2014).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관계. 2014 한국배려학회 창립학회학술대회 자료집, 3-18.
- 박은미 (2006). 한국 부부의 바람(want) 탐색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시도: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가톨릭 교회의 효율적인 대안 모색을 위하여. 인간연구, (10), 85-116.
- 박정식, 김용희, 이상교, 김미혜, 김 원, 임동후 (2005). 남을 배려하기. 아동문학평론, 30(3), 74-80.
- 박혜연 (2010). 배려 증진 집단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배려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지은 (2010).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 경험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회지, 15(3), 425-445.
- 송정아 (1996).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 113-130.
- 양미진, 김은영, 이상희 (2008).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려증진프로그램 개발. 서울: 청소년상담연구.
- 오윤자, 유영주 (1994).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 205-218.
- 이기복 (2006).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용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신 (2008). Nel Noddings의 배려교육론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식 (2012). 예비 교사들의 배려 의미 인식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초등도덕교육, 38, 155-176.
- 이보라 (2007). 배려윤리 실천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효과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 (2012). 유교의 부부 疏通에 관한 研究. 유교사상문화연구, 47, 139-165.
- 이연수, 김성희 (2009). 초등학생용 배려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0(4), 2479-2493.
- 이종길 (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이향심 (2007). 이타주의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또래 수용도. 홀리스틱교육

- 연구, 11(2), 15-29.
- 이화자, 최연실 (2003). 중년기 부부관계증진 (enrichment)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Satir 가족치료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2), 49-76.
- 임수형, 김희화, 공유경 (2010).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과 성별, 성역할정체감 및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학회지*, 21(2), 179-190.
- 전지혜 (2012). 노인의 관계욕구와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 (1996). 청소년 비행예방과 치유를 위한 치유 인자에 대한 고찰. *제주한라대학 논문집*, 20, 83-99.
- 정영숙 (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 (2001). 디지털시대, 협공 받는 중년기 가족.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가정관리학회 2001년도 30차 추계 학술대회*, 33-45.
- 조금호 (2011). 유학사상에서 본 성숙한 노화: 군자론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모델의 구축, 활용 및 보급 연구팀 워크샵 자료집: 한국인의 성숙한 노화를 향하여*. 37-75.
- 조혜경 (2008). 관계 중심 배려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trocchi, J. (1989). Happy traditional and companionship marriages. *Social Casework*, 69, 434-442.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Y: The Guilford Press.
- Berscheid, E., & Reis, H. T. (1998). Attraction and close relationship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193-281). New York: McGraw-Hill.
- Blasi, A. (1985). The moral personality: Reflections for social science and education. In M. W. Berkowitz & F. Oser (Eds.), *Moral education: Theory and application*(pp.433-44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rown, S. L., Nesse, R. M., Vinokur, A. D., & Smith, D. M. (2003). Providing social support may be more beneficial than receiving it results from a prospective study of mortality. *Psychological Science*, 14(4), 320-327.
- Burton, R. V. (1963). Generality of honesty reconsidered. *Psychological Review*, 70, 481-499.
- Clark, M. S. & Mills, J. (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12-24.
- Cobb, R. J., Davila, J., & Bradbury, T. N.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31-1143.
- Cordova, J. V.,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8). Acceptance versus change interventions in behavioral couple therapy: Impact on couples' in-session communic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4), 437-455.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 Suh, E. (1998).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national analysi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17, 304-

- 324.
- Emily, A. L., Shelly, L. G. & Letitia, A. P.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 and benefit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44.
-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isher, B. & Tronto, J. (1990).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In E. Abel & M. Nelson (Eds.), *Circles of Care: Work and identity in women's lives* (pp.35-62).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rankl, V. (1969). *The will to meaning*. Cleveland: World Publishing.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ttman, J. M & Silver, N. (1999).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ying work*.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Graham, H. (1983). Caring: A labour of love. In J. Finch & D. Groves (Eds.), *A labour of love: Women, work and caring*(pp.13-30).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Harvey, J. H., Pauwels, B. G., & Zickmund, S. (2002). Relationship connection: The role of minding in the enhancement of closeness.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423-43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ld, H. (2006).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ill, M. S. (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27-451.
- Hogan, R. (1973). Moral conduct and moral character: A psychological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79, 217-232.
- Kingston, P. W., & Nock, S. L. (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391-400.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Harper & Row.
- Kotre, J. (1984). *Outliving the self: Generativ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liv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amm, H. & Schwinger, T. (1980). Norms concerning distributive justice: Are need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llocation decis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425-429.
- Long, E. R., & Andrew, C. D. (1990).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26-131.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American Psychologist*, 56, 239-249.
- McAdams, D., Hart, H., & Maruna, S. (1998). The anatomy of generativity. In D. McAdams & Ed de St. Aubin (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Washington D. C.: American.
- Matthews, L., Conger, R. D., & Wichrama, K. A. (1996).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quality: Mediating process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 62-79.
- Mayeroff, M. (1971). *On caring*. New York: Harper & Row.
- Miller, R. S., Perlman, D., & Brehm, S. (2007).

- Intimate relationship* (4th ed.). New York: McGraw-Hill.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L. 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Post, S. G. (2005). Altruism, happiness, and health: It's good to be g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2(2), 66-77.
- Rushton, J. P. (1980). *Altruism, socialization, and socie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precher, S. (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ity and emotions in close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4), 309-321.
- Tarlow, B. (1996). Caring: A negotiated process that varies. In S. Gordon, P. Benner, & N. Noddings (Ed.), *Caregiving: Reading in Knowledge, Practice, Ethics, and Politics*. (pp.56-82).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Thomas, P. A. (2010). Is it better to give or to receive?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10, 1-7.
- Van Yperen, N. W., & Buunk, B. P. (1991). Equity theory and exchange and communal orientation from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 5-20.
- Williamson, G. M., & Clark, M. S. (1989). Providing help and desired relationship type as determinants of changes in moods and self-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722-734.
-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 Chapman, M. (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126-136.

1차원고접수 : 2014. 10. 13.

수정원고접수 : 2014. 11. 30.

최종게재결정 : 2014. 12. 03.

Relationships among Care for Spouse, Marit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married couples

Seung-ju Kim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care for a spouse in middle-aged married couples. Eighty-two husbands and wives were asked to rate their degrees of care for their spouse and of their expectation for desired care by their spouse, using 27 components of car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husbands and wives in the degree of care for a spouse.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expectation for desired care; wives had higher expectations of care than did husbands. An examination of husbands and wives' care for each other revealed that both husbands and wives cared for a spouse less than they desired to be cared by their spouse. The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for husbands, their care for their wives and their desired degree of care affected marital satisfaction. Meanwhile, for wives, marital satisfaction was affected not only by their care for their husbands and their desired degree of care, but also by the husbands' care for their wives and desired degree of care.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for husbands, only their care for their wives affected their satisfaction; whereas for wives, their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care for their husbands and their husbands' care for them.

Key words : care, desired care, marital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middle-aged married couple